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57>

JCCT 2024-11-7

‘취업’ 목적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한국어 신조어 선정 기준 제언

Suggestions for New Korean Words that Reflect Needs of Learners for Purpose of 'Employment'

김덕신*

Kim Deok-shin*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취업’에 필요한 신조어 어휘 선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K-’ 계열에서 취직을 할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한 뒤, 한국어 도우미와 교수자의 도움을 받아 학습자가 학습할 신조어 기준과 목록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기준을 수용하되, 직장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사회 현상, 직무 관련성, 문화 적응성, 실용성 등을 추가하여 60여 개의 신조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내에서 직장 생활하려는 유학생들에게 비즈니스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며, 나아가 신조어 교육을 위한 교수 모델을 만드는 바탕이 되어 한국어 어휘 교육에 이바지할 것이다.

주요어 : 학습자 요구, 신조어, 직무 관련성, 문화 적응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presenti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newly coined words necessary for 'employment'. After conducting a survey on the needs of 10 international students who will get a job in the 'K-' field, a standard for newly coined words to be learned with the help of Korean helpers and instructors was prepared and a list was presented. While accepting the existing standards, more than 60 newly coined words were presented by adding social phenomena, job relevance, cultural adaptability, and practicality that should be known for working life. This research will serve as practical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want to work in Korea to improve their business, and further contribute to Korean vocabulary education as a basis for creating a teaching model for newly coined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 Learner needs, new words, Job relevance, cultural adaptability

1. 서론

바야흐로 지금은 ‘K-’ 시대이다. ‘K-, K-드라마’가 2021년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에 우리말 24개와 더불어 새롭게 등재된 이후에도 ‘K-팝, K-푸드, K-의료, K-스포츠, K-뷰티’ 등 그 어휘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 중 ‘K-’ 계열에서 직업을 구하고 싶어 하는 유학생들

의 신조어 학습 요구를 충족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난 학생들로서 취업을 앞두고 한국의 최근 사회, 문화, 교육 현상 등에 대해 깊게 알기를 원했다. 특히 자신의 미래 직업을 위해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과 문화를 알고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동안 신조어는 ‘교재 밖’ 어휘로 간주하고 이를 가르치는 데에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사실이나(김덕신 2021:216), 매체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재 밖의 어

*정희원,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대학 강사 (제1저자)
접수일: 2024년 9월 25일, 수정완료일: 2024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5일

Received: September 25, 2024 / Revised: October 25, 2024
Accepted: Nov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rytn11@daum.net

Dep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AIST, Korea

회인 신조어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김덕신 2022), 'K-' 계열에서 일할 학습자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신조어를 한국어 학습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한국어 도우미와 교수자의 도움을 받아 그 기준과 목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 한국어 교육용 신조어들이 나름의 기준으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요구를 조사하여 기준과 목록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내에서 직장 생활하려는 유학생들에게 비즈니스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며, 나아가 신조어 교육을 위한 교수 모델을 만드는 바탕이 되어 한국어 어휘 교육에 이바지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한국어교육에서 신조어는 교육의 필요성(여소몽 2010, 윤이나 2012, 왕연닝 2010, 이림 2017, 이래호 2011), 신조어 목록 선정(이사위 2013, 이현정 2015, 이대현 2016, 백은지 2017, 이경숙 2020, 정현규 2020, 정소담 2021, 이현정 2021, 강수진, 이정현 2022), 문화교육(전경윤 2018), 교수법(김덕신 2021, 임진숙 2021), 학습자들의 인식 조사(이주미, 이연정, 2022)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지만, 아직 그 양은 다른 어휘 분야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신조어 목록을 선정한 방법들은 대부분 비슷한 방식을 취한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어 자료집>을 기초 자료로 삼아 교육용 신조어의 예시 목록을 선별하거나 최근 몇 년간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를 찾아, 그 신조어의 생명력을 토대로 조어론적 입장이나 의미관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된 신조어 목록 선정과 학습자들의 인식 조사 연구는 3장에서 더 살필 것이나, 연구 주제 면에서 유현정(2022), 강수진(2022)의 연구에 주목한다. 유현정(2022)은 케이팝 노래 가사로 말뭉치를 구축하고, 강수진(2022)은 '사회' 주제 영역의 신조어를 선정한 것으로 자료 구축을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하였다. 강수진(2022)은 '사회' 주제 영역의 한국어 교육용 신조어를 선정한 연구이다. 한국 사회와 문화를 교육하기 위하여 신조어 중 '사회'와 관련된 어휘만을 뽑은 것이 특징적이다.

최근 10년간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

국어 어휘 교육 연구 동향을 살핀 허예인·조현용(2023)에 따르면 연구 주제는 어휘 교수 방안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 방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적인 어휘 연구가 부족하고, 교육 방안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나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반영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반영하고, 신조어에서 그 어휘가 나타난 배경이나 우리 사회의 문화를 읽어내는 사회언어학적인 연구를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어휘 교육의 한 부분을 채우게 될 것이다.

III. 연구 대상과 절차

일반적으로 어휘 선정을 위해서는 어휘론 또는 어휘 교육론의 전문가가 직관적으로 어휘를 선정하는 주관적 방법론, 교재나 사전에 등재된 어휘를 반영하는 객관적 방법론, 두 방법을 적용한 절충적 방법론이 다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그간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관적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K-' 계열에서 일할 이들은 이미 학습자의 단계를 넘어 직업인으로서의 어휘를 배워야 하는데, 신조어는 교재, 사전 등에 일부만 반영되었으므로 객관적 방법으로 어휘를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이 연구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방법론을 택한다. 이것은 객관적 방법론이 갖는 교재, 말뭉치 등의 검증 여부, 대표성 여부, 교육적 효용 및 적용 가능성 여부 등의 한계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1차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수자가 목록을 검토한다. 이러한 이유는 이들은 외국인 학습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의 수준과 요구를 알고 있어서 비교적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 세 단계에 걸쳐 교육할 대상 어휘를 뽑게 될 것이다.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1단계는 유학생 10명, 2단계에서는 한국어 도우미 대학생 6명, 3단계에서는 한국어 교수자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 단계 중 학습자인 유학생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므로 한국어 도우미와 전문가의 활동은 긴박하게만 기술한다.

1.1. 한국어 학습자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는 2023년 9월 18일-10월 25일에, 2차는 2024년 3월 20일-4월 20일에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총 10명(베트남 3명, 중국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방글라데시 1명, 필리핀 1명)으로 이들은 모두 C 대학에 재학 중이다. 자기 나라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현재 일인 방송(‘유튜브’)을 운영하는 자, 한국 기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자, 소비자의 특성과 요구를 빨리 읽어내는 것이 필요한 소비자학 전공자, 자국에 돌아가서 한국어 교수자가 되려고 한국어를 전공하는 자, 자국의 한국 방송에서 일하기 위해 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의류, 제과, 항공, 여행, 한국어교육 등 취업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특히 [표 1]의 1번은 현재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인 방송을 운영 중이며, 8번은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다.

표 1. 한국어 학습자 정보
 Table 1. Korean learner's information

연번	학과 (학년)	국적	학습 목적
1	한국 문화학(2)	방글라데시	현재 자국민 대상의 일인 방송(‘유튜브’) 운영 중
2	아시아 비즈니스(4)	우즈베키스탄	한국 기업체 취직 준비 중
3	소비자(3)	베트남	한국 의류회사 취직 준비 중
4	소비자(4)	베트남	한국 제과 회사 취직 준비 중
5	언론정보(3)	필리핀	자국 방송국에서 한국어 방송 인턴 준비 중
6	한국 문화학(3)	중국	한국 항공계 취업 준비 중
7	아시아 비즈니스(3)	우즈베키스탄	한국 기업체 취직 준비 중
8	영어영문(4)	베트남	한국 중소기업(농업 기술) 취직 확정
9	영어영문(3)	중국	한국 여행사 취직 준비 중
10	국어국문(3)	중국	한국어 교사 희망

1.2. 한국어 도우미와 전문가

C 대학과 K 대학 재학생으로서 한국인 도우미로 봉사하는 학생 여섯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들은 원래 한국어 연수생을 도와주기 위해 선발되어 학교의 지원을 받고 일정 기간 도우미를 한 학생들이다. 현재는 이 기간이 끝나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운동과 사고, 언어 맞춤형 학습, 한국어교육 실습 등을 목적으로 만남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면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있다.

참여 교수자인 전문가는 여섯 명으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경력, 연령, 성별, 지역 등을 다양하게 분배하였다. 교수자 경력은 20년 이상이 1명, 10-20년이 2명, 5-10년이 2명, 5년 미만이 1명이며, 연령은 50대 1명, 40대 3명, 30대와 20대가 각각 1명이다. 성별은 남녀 각각 3명이며, 지역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원주 등 총 6곳이다.

2. 연구 절차

조사는 모두 두 차례씩 시행하였다. 한국어 학습자 요구 조사는 1차(2023년 9월 18일-10월 18일), 2차(2024년 3월 20일-4월 20일)에 자신이 알고 싶은 분야의 신조어를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등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어 도우미는 1차(2023년 9월 18일-10월 25일), 2차(2024년 3월 20일-4월 27일)에 걸쳐 자신이 맡은 외국 학생이 알고 싶어 하는 주제에 대한 신조어 목록을 만들었다. 전문가는 한국어 도우미 자료를 바탕으로 1차(2023년 10월 26일-11월 5일), 2차(2024년 4월 27일-5월 10일)에 걸쳐 신조어 목록을 살핀 후 교수자 입장에서 어휘 확장 가능성과 문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목록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IV. 신조어 기준과 목록 제언

1. 한국어 학습자 요구 사항

외국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신조어를 개별 어휘나 주제별로 제시하거나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줄여 쓰는 말을 배우고 싶은데,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규칙이 있어요?
- 빨리 배울 수 있는 신조어를 알고 싶어요.
- 한 방법을 배우면 규칙처럼 다른 단어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많이 알면 좋겠어요.
- 저는 캠핑을 하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알고 싶어요.
- 캠핑에 대한 신조어가 많나요? 알고 싶어요.

- 운동에 대한 신조어를 알고 싶어요. 운동 끝나고 '카톡'에 쓰면 좋은 말을 알고 싶어요.

- 외국인들에 대한 신조어가 있는가? 특히 외국인들을 나쁘게 말하는 말은 없는가?

외국인은 우리는 모르게 하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말이 있는가?

- 단어만 아니고 그 말이 사용되는 상황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다' 같은 말. 나는 고구마를 좋아하지 않지만 고구마에 대한 무슨 나쁜 새 말도 있다고 들었어요. 연예인이 나와서 영상에서 '어쩔?'하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 한국인들과 일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배우고 싶어요.

- 한국 사회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말하는 단어들을 알고 싶어요.

- 어떤 유행하는 말을 사용해야 소비자가 좋아해서 광고가 잘 되나요?

- 직장 생활할 때 꼭 알아야 할 신조어가 있나요?

- 한국의 중요한 시대마다 유행했던 신조어들을 배우고 싶어요.

이상을 정리하면 응답자들은 어휘 확장, 유행하는 신조어와 그 사용 환경과 쓰임, 특정 주제(캠핑, 운동, 소비 등), 취업과 직업에 도움이 되는 것 등을 요구했다. 학습자 요구를 분석한 결과 빈도수와 조어력이 높은 것,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것 등은 내국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이한 것은 외국인에 관련된 신조어와 그 의미 가치 등을 요구한 점이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특정 표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 가치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2. 신조어 기준 제언

여러 연구(이사위 2013, 이대현 2016, 이경숙 2020, 정현규 2020, 정소담 2020, 이현정 2021, 강수진 2022)는 교육용 신조어 목록 작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구자들은 모두 빈도수를 기준에 포함하였으며, 다음이 한국어 교육에서의 적합성, 우리말샘 사전의 등재 여부였으며, 그 외 조어력, 한국문화 관련성,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 현재 사용 여부와 지속성이었다.

이사위(2013), 이대현(2016), 백은지(2017), 정소담(2020) 등에서 학습자 수준과 관심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사위(2013)는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에 맞거나 학습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속한 신조어를 선택한다. 이대현(2016)은 토의·토론 수업은 중·고급 학습자들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용

신조어를 선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에서 제시한 기준에 취업과 직장 생활에 필요한 어휘와 기준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요구 사항을 먼저 반영한다. 몇몇 연구에서 학습자의 관심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실제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비중이 높다.

먼저 한국문화 관련성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알 수 있는 신조어 제시가 필요하다. '헬조선(살기가 힘들어 지옥과 같다는 한국)', '흙수저(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뜻)',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 등의 신조어는 당시의 시대를 표현한 것이다. 신조어는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와 고민을 안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시한다.

(1) 일상적인 행동들을 혼자서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현재의 사회상을 반영한다(혼밥, 혼술 등)

(2)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계층을 나타내는 어휘가 지속된다(금수저, 흙수저 등)

(3)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문학 전공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상을 표현한다(인구론, 문송합니다).

(4) 우리 사회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발음의 부정확함을 이용한 신조어가 등장한다(놀랍은행).

(5) 인터넷, 유튜브 등에 대한 어휘가 증가하고 있다(좋댓구알, 유냥과 등)

(6)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어 배송에 대한 어휘가 많이 등장한다(무배, 택배, 주불 등)

(7) 음식에 대한 어휘가 많고 그중에서 치킨은 단연 맛있는 음식으로 통한다(부먹, 짬뽕, 당모치 등)

교육용 신조어 선정 기준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사전의 등재 여부(백은지 2017, 이경숙 2020, 정현규 2020, 이현정 2021, 강수진 2022)도 필요하다. 그러나 신조어가 사전에 실리기에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취업 목적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정소담(2021:66)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에 맞거나 학습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분야에 속한 신조어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교육용 신조어 어휘 선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을 기준에 넣었다. 전문어의 경우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것은 제외하고, 비속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

별적 시선 등이 담긴 신조어를 제외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종래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에 바탕을 두되,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비속어에 해당하는 것, 차별적 시선이 담긴 것은 제외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교육용 어휘 선정 기준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일할 'K-' 계열 '취준생'들은 오히려 특정 집단인 외국인을 표현하는 특정한 신조어가 있는지, 그 의미 가치는 부정적이지 않은지 알고 싶어 했다. 비속어나 차별적 표현이 교육하기에는 비록 적절하지 않을지라도,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일하려는 유학생들에게는 금급한 것이며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어휘는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해당 직무나 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조어를 포함한다. 이러한 예로는 '프레젠테이션'을 '피티(PT)'로 줄여 부르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은 한국 직장 문화와 관련된 '문화 적응성'이 높은 어휘를 포함하여야 한다. '칼퇴, 갑을관계, 워킹맘, 갓생, 내또일, 내또출, 워라밸'과 같은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직장인이므로 일상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성'이 높은 신조어를 포함해야 한다. '안전불감증, 알리미(규범 표기는 '알림이'임), 원격근무' 등이 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미지, 음악, 영상 등과 결합한 '인터넷 밈'이 유행하고 있다. 영상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신조어라고 하기 어렵지만, 그 밈에는 언어적 요소가 바탕이 되므로 일반 언중들에게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된 유행어'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광길 2023). '어쩔 X'를 한 예로 든다. '어쩔 티비, 어쩔냉장고' 등 '어쩔 X'의 어휘가 아주 많다. 한국어 학습자 요구 조사에서도 학습자는 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을 알기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1단계의 신조어 목록에는 넣지 않았지만 교수자들은 2단계에서 '어쩔티비'를 넣은 상태이다. 신조어가 포함된 밈도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라면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

'언어적 적합성'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신조어를 선택해야 하되, 너무 어려운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우선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 수준에서 학습자마다 한국어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휘 선정을 위해서는 신조어의 '빈도, 범위(range), 포괄성(coverage), 학습 용이성, 활용성' 등을 반영하여 위계화의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 다행히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위계화에 대한 부담은 덜하다고 본다. 신조어의 지속성과 출현 여부는 빈도수에 포함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분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빈도수, 조어력'은 '취업' 목적 학습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어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도 이를 받아들인다. 이 기준에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사항과 도우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어휘는 ++로 표시하여 제시한다(표 2).

표 2. 빈도수, 조어력을 기준으로 한 신조어 목록
 Table 2. a list based on frequency and lexical co-ordination

종류	신조어
빈도수	갑분싸, 꾸안꾸, 길끼빠빠, 당모치, 마상, 만반잘부, 말잇못, 먹튀, 무배, 버카중, 복세편살, 분조장, 분종카, 불명, ++물명, 심쿵, 오운완, 점매추, 찢잘사, 주불, 중꺾마, 택포, 할말하얏, 아싸, 인싸, 개이득, 빛투족, 영끌족, ++별다줄
조어력	혼밥++혼술 ++혼공 슬세권, 역세권 주린이, 등린이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사항과 도우미, 전문가의 의견(++로 표시)을 반영한 '취업' 목적 신조어 기준과 목록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취업' 요구를 반영한 신조어 목록
 Table 3. a list of new words that reflect 'employment'

종류	신조어
사회 현상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인구론 ++문송합니다
직무 관련성	피티(PT)
(직장) 문화 적응성	칼퇴, 갑을관계, 워킹맘, 갓생, 내또일, 내또출, 워라밸
(업무) 실용성	안전불감증, 알리미, 원격근무
기타	머선129 ++어쩔티비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K-'계열에서 일할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와 그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할 한국어 도우미와 교수

자의 도움을 얻어 학습자를 위한 신조어 목록을 만들고자 하였다. 기존의 기준을 수용하되,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를 이해해야 하므로 '사회 현상'을 반영한 신조어를 선정해야 한다.

둘째, 업무를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조어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직장) 문화 적응성'이 높은 신조어를 선정해야 한다.

넷째, '(업무) 실용성'이 높은 신조어를 선정해야 한다.

끝으로 신조어가 포함된 mim도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상에 넣을 수는 있으나, 이는 특정 기준으로 명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반영하여 60여 개의 신조어를 제시하였으나, 신조어의 예는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종래 학문 목적 학습자의 교육용 신조어 선정 기준에 바탕을 두고 취업용 신조어 시안을 제안했다는 점과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고자 하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구 조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많지 않아 표본으로 삼기에 적당한지 검토할 일과 취업용 신조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교수법을 과제로 남긴다.

References

- [1] S. J. Kang, "Study on the selection of new word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subject area of 'society'."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Sunmoon University, 2022.
- [2] S. J. Kang, J. H. Lee, "Study on the Selection of New Words for Advanced Korean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Society of Cultural Convergence 44-6, 23-43, 2022.
- [3] N. D. Kim et al., "Trend Korea 2024," Window of the Future, 2023.
- [4] D. S. Kim, "Studying New Language Teaching Methods Using Flip Learning in Korean Education," Language Research 108, Language Research Society, 195-221, 2021.
- [5] D. S. Kim, "The Poetry for the Value and Data Construction of New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8.1, 371-377, 2022. 10.17703/JCCT.2022.8.1.371
- [6] K. G. Park, "A Study on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Internet Memes," Humanities Research 66,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umanities Research Center 5-26, 2023. <http://dx.doi.org/10.33252/sih.2020.9.66.5>
- [7] E. J. Baek, "Study on the Selection of Korean New Words for Advanced Korean Learners - Focusing on Subject Classification," Master's Degree Pape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2017.
- [8] S. M. Yeo, "A Study on the Guidance Method of New Words for Korean Learners,"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0.
- [9] Y. N. Wang, "Study on the teaching plan of newly coined Korean words," master's degree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0.
- [10] H. J. Yu, "Study on the Selection of Korean Vocabulary List for Hobby Korean Learner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22.
- [11] N. Y. Lee,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educational plan of Korean neologism education for foreign learn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2012. <http://dx.doi.org/10.17002/sil..20.201108.155>
- [12] K. S. Lee, "Selecting New Words and Classifying Topic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Paper, 2020.
- [13] D. H. Lee, "Study on New Language Discussion and Discussion Teaching Learning Methods Using Media - Targeting Korean Medium and Advanced Learners," Master's Degree Pape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Foreign Studies University, 2016.
- [14] R. H. Lee, "A Study on the New Language Education Pla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Linguistics Research 20, Korean Central Language Society, 155-178, 2011.
- [15] S. W. Lee, "a study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methods using new word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ster's thesis, 2013.
- [16] J. M. Lee, Y. J. Lee, "Study on the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ew Korean Use of New Words by College Freshmen," Humanities Society 21, Vol. 13, No. 2. 1427-1442, 2022.
- [17] H. J. Lee, "Study on the Selection of New Language Language Institut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Trend of Language Power and Frequency of New

Language Language Institute," Language Facts and Perspectives 36, Yonsei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formation Service, 99-212, 2015.

- [19] H. J. Lee, "Study on Neologism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Ph.D. thesis, 2021.
- [20] J. S. Lim, "Case Study of Current Affairs Korean Language Classes Applying Blended Learning - Focusing on the compromised teaching method of flip learning and PBL," liberal arts education research volume 15, No. 2, Korean liberal arts education society, 219-231, 2021.
- [21] K. H. Jang, "Studying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et Memes," Korean Literature 82, 23-49, 2023.
- [22] K. Y. Jeon,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neologisms using cultural categories," Master's thesis at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8.
- [23] S. D. Jung, "Study on how to select a list of new educational words for Korean learn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21.
- [24] Y. I. Her, H. Y. Jo, "Research Trends for Korean Vocabulary Education-Focusing on Korean Journal Papers Published in the Last 10 Years," Korean Language Culture 20, International Korean Language Culture Society, 211-248, 2023.